

배포 일시	2022. 11. 11.(금)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	책임자	과 장 김은정 (044-201-3855)
		담당자	사무관 장문석 (044-201-3856)
			주무관 정미정 (044-201-3857)
보도일시	2022년 11월 14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4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, 올 집중호우·태풍 침수차 정보 18,289건 확보

- 11.15. 중고차단지 침수차량 현장조사 실시

- 소비자들이 더 많은 침수이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8월에 발표한 「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」의 후속조치로서,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.
 -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.
 -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.
 -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.
- 국토부는 8월~9월 집중호우·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,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하였고, 이중 14,849건은 폐차(말소등록) 되었다.
 - 또한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,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,292건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.

-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,
 -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.
- 또한 소비자들은 자동차365*에 접속하여,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,
- * (사이트 메뉴) 중고차 매매 > 중고차 매매요령 > 중고차 침수조회 서비스
- 소비자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실시하였다.

< 참고 : 자동차365 화면 >



-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, 침수차 유통 현장 점검(11.15, 수원중고차매매단지)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